

## 제31회(2019년) 아산상 부문별 수상자 현황

부 문	수상자(단체)	주요 공적내용
아 산 상	이석로	1994년부터 25년간 방글라데시에서 가난한 이들을 치료하며 인술을 실천해왔으며, 지역 주민들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회사업을 전개하여 열악한 의료·사회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음. 꼬람뜰라병원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를 구축하면서 병원의 자립도를 높였고,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자리 잡는 데 공헌했음. 2009년에는 안과 클리닉을 개소하여 극빈 계층에는 무료 또는 최소의 비용으로 백내장 수술을 해주어 방글라데시 환자들의 시력을 찾아주었음. 의료지원 외에도 직장을 갖기 힘든 방글라데시 여성들을 위해 간호학교를 설립하고, 간호과정을 수료한 여성들을 병원에 채용하여 자립을 도왔음.
의료봉사상	김혜심	원광대 약대 박사과정 중 소록도에 의료 인력이 없다는 기사를 읽고 소록도를 찾아가 8년간 거주하며 약사로 근무함. 이후 원광대 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센인들을 위한 봉사를 이어오다가 1995년에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와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건너가 보건소와 에이즈 환자를 위한 센터를 열고 치료약 제공 및 에이즈 예방 교육 등을 전개하였음. 이외에도 유치원과 여성개발센터, 무료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아동 교육과 빈곤여성 직업훈련 교육, 지역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사회봉사상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	1973년 설립 이래 가난한 노인들을 정성껏 돌본다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종교·지역과 관계없이 의지할 곳 없는 무의탁 노인들을 보살펴왔음. 현재 본부인 수원을 포함해 서울, 원주, 담양 4곳에서 양로시설을 운영하며 30명의 수녀들이 200여 명의 노인들을 돌보고 있음. 지난 46년 동안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가 운영하는 양로원에서 머문 노인들은 800여 명에 달하며, 노인들에 대한 헌신적인 간호와 간병, 평화로운 임종까지 책임지며 국내 양로원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음.
복지실천상	권혜경	지역자활센터에서 13년간 근무하며 7개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에 기여함.
	김민석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와 정보화 교육을 담당하며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옴.
	정금숙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엠마우스산업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34년간 발달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노력해 옴.
자원봉사상	김승용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21년간 급식봉사, 하천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옴.
	박영도	36년간 야학교사로 활동하며 검정고시 교육 등을 시행하였으며, 국내 평생교육 발전과 제도화에 기여함.
	대한적십자사 내도봉사회	30년간 장애아동, 독거노인, 새터민을 지원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집수리·집짓기 봉사활동을 시행함.
효행·가족상	송승희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으로 다리를 잃은 남편을 보살피며 생계를 책임져왔고, 전립선암 말기의 시부, 지체장애인 시모를 봉양하며 가정에 헌신함.
	심재순	시각 장애 남편을 대신해 농사일과 가사를 책임지고, 치매 시조부와 시부모, 모친이 사망할 때까지 봉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룸.
	여환숙	시각 장애인 안마사로, 척추 장애인인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고 남편과 두 자녀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해 옴.